

# LA다저스, 103년 만에 NL 한 시즌 '110승 위업'

콜로라도에 역전승... 시카고 컵스·피츠버그 이어 리그 세 번째 MLB 전체로도 2001년 시애틀의 116승 이후 21년 만에 달성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NL) 팀으로는 무려 103년만에 한 시즌 110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LA 다저스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서 1-4로 뒤진 7회 말에 3점을 뽑아 균형을 맞춘 뒤 8회 말에 2점을 더 보태 6-4로 이겼다.

이로써 LA 다저스는 110승(48)째를 기록하며 지난 1906년 시카고 컵스(116승 36패)와 1909년 피츠버그 파이리츠(110승 42패)에 이어 NL 팀으로 통산 세 번째로 한 시즌에 110승을 달성한 팀이 됐다. NL에서 한 시즌 110승을 달성한 것은 무려 103년 만의 대기록이다.

또 MLB 전체로서도 무려 21년 만에 110승 팀이 나왔다. 지난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가 116승 46패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110승 팀이 나오지 않았다.

최근에 110승에 근접했던 팀은 지난해 107승 55패를 기록했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였다.

이와 함께 LA 다저스는 시카고 컵스와 시애틀(116승), 뉴욕 양키스(1998년, 114승 48패), 클리블랜드 가디언즈(1954년 당시 클리블랜드 인디언즈, 111승 43패), 뉴욕 양키스(1927년, 110승 44패), 피츠버그(110승)에 이어 역대 일곱 번째 110승을 달성한 여섯 번째 팀이 되는 영광을 누렸다.

LA 다저스의 뒷심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여기에 콜로라도 불펜진이 자멸한 것도 컸다.

LA 다저스는 3회 말 프레디 프리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고 4회 초 라이언 맥맨의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허용한 뒤 랜달 그리척의 스리런 홈런으로 1-4로 역전 당했다.

그러나 7회 말 대반전이 일어났다. 트레



LA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 브루스다 그라테롤(오른쪽)과 포수 오스틴 반스가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2022 MLB 홈경기에서 6-4 승리를 결정지은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이 터너, 프리먼, 트레이스 톰슨의 연속 볼넷으로 안타 하나 없이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든 LA 다저스는 조이 갈로와 오스틴 반스의 연속 밀어내기 볼넷으로 3-4까지 추

격했다. 이어 코디 벨런저의 희생플라이로 4-4 균형을 맞췄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LA 다저스는 8회 말 트레이 터너와 프리먼의 연속 안타와

톰슨의 볼넷으로 다시 한번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고 갈로의 희생플라이로 벨런저의 적시타를 묶어 2점을 더하며 역전승을 완성했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결그룹 '레인보우' 출신 배우 고우리 5세 연상 사업가와 화촉



결그룹 '레인보우' 출신 배우 고우리가 3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서초구 모처에서 결혼했다. 뉴시스

결그룹 '레인보우' 출신 배우 고우리가 예비신랑과 3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결혼했다.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이날 웨딩 사진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스타 웨딩 방식으로 가족과 가까운 지인 50여명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두 사람의 스케줄을 고려해 이달 중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신랑 A씨는 다섯 살 연상으로 현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며 서로 애정과 두터운 신뢰를 확인해 왔다. 고우리는 2009년 레인보우로 데뷔했다. 멤버들과 '에이(A)' '차차' 등의 히트곡을 냈다. 배우로 전향한 이후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여신강림' 등에 출연했다.

결혼 이후에도 연기 활동을 병행한다. 현재 방영 중인 유투v 오리지널 드라마 '가우스전자'를 비롯해 이미 촬영을 마친 HBO 맥스(Max) 드라마 '텐탈리스트'가 공개를 준비 중이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 김수지, KLPGA 투어 하나금융 챔피언십 'V 축배'

2주 연속 우승 '돈방석'

김수지(26)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서 우승했다.

김수지는 2일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타를 기록했다.

이로써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가 된 김수지는 지난주 OK금융그룹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또 우승 상금으로 2억7000만원을 쟁겼다. 김수지는 다음주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서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3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1~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렸던 홍정민(20)은 1타 차로 우승을 놓쳤다.



2일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CC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김수지가 6번홀 아이언샷을치고 있다. 뉴시스

올해 5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 이어 통산 2승을 노렸으나, 이에원(19)과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소미(23)와 성유진(22)이 공동 4위(11언더파 277타)에 올랐고, 지한솔(26)과

자라위 분짚(태국) 등이 공동 6위(10언더파 278타)에 자리했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패티 타와타나깃(태국)은 공동 42위(이븐파 288타)에 머물렀다.

## '170cm 최단신' 니시오카, 코리아오픈 우승

'웜블던 4강' 샤프발로프 제압 생애 두 번째 투어 대회 제패

신장 170cm의 단신인 니시오카 요시히토(일본·56위)가 생애 두 번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니시오카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ATP 투어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오픈 단식 결승에서 테니스 샤프발로프(캐나다·24위)를 2-0(6-4 7-6(7-5))으로 꺾고 우승했다.

1995년생으로 2014년 프로로 전향한 니시오카가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8년 9월 중국 선전오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키 170cm로 투어 대회에서 뛰는 선수 중 키가 가장 작은 니시오카는 한 발 더 뛰는 플레이와 정확도 높은 샷, 강한 체력을 앞세워 우승을 일궜다.



니시오카는 이번 대회에서 강자들을 줄줄이 꺾었다. 8강전에서 올해 US오픈 준우승자인 카스페르 루드(노르웨이·2위)를 제압했고, 결승에서도 지난해 웜블던에서 뛰는 플레이와 정확도 높은 샷, 강한 체력을 앞세워 우승을 일궜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 내일의 부 전 2권 1권 알파편, 2권 오메가편

폭락장에서 증명된 조던 김장섭의 통찰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다면 이 책에 답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99.9% 부자 되는 법,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천기누설급' 부자 매뉴얼!

이 책은 이론만 그럴싸한 책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 지난 수십년 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분석하고, 그 자신이 직접 이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JD 부자연구소'에서 회원들이 투자에 활용하고 있고,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세상에 난 하나뿐인 완벽한 부자 되기 비법이다. 부동산부터 주식, 채권, 환율까지 국내투자를 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내 손 안에 넣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오랫동안 최대의 수익을 제갈량처럼 떡주무르듯 할 수 있는 신묘한 계획을 제시한다! 당신은 매뉴얼에 따라 기계처럼 사고팔기만 하면 된다.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책이라 할 수 있다.

"뻥할 것이라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 책은 부자 티켓 그 자체다!"

출간 즉시 전서점 베스트셀러

조던 김장섭 지음 | 각권 16,000원 트러스트북스



조던 김장섭의 또다른 필독서! (각권 16,000원)

-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 <4차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
-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
-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도서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관련 문의는 02)322-3409 트러스트북스